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6월 21일(금)

...(음력 5월 16일)...

Пятница

21 июня 2024 г.

№ 24 (1209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제5회 극동지역 극장축제, 6월 17일(월) 사할린 주정부 청사 앞 광장에서 개막.

(사할린주정부 제공)

단신

극동 연방관구 국민 포럼에 사할린 대표단 참가

6월 18일 하바롭스크에서 첫 <어른들에게 있어 중요한 대화>극동 연방관구 국민포럼이 열린 가운데 이에 300명의 종교계 및 다민족 연맹 지도자들과 사할린주를 포함해 극동 11개 지역의 북방소수민족원주민 대표들이 참가했다. 포럼의 핵심 중 하나는 애국 교육에 대한 논의였다. 포럼의 주요 주제들은 민족 정책, 다민족 국가의 단결 강화, 극동 연방관구 지역 내 애국적 분위기, 극동지역의 발전의 총결 등에 초점을 맞췄다.

사할린주에서 '추모의 촛불', '목념의 시간' 행사 열려

6월 22일(토) 새벽 4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영광의 기념비 앞에서 대조국 전쟁에서 목숨 잃은 분들을 추모하여 각 사회단체 회원들과 정부 대표 및 종교계의 대표들과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의 촛불' 집회행사를 진행한다. 이 날 15시에는 영광의 기념비 옆에서 불멸의 성화에 화환을 진정하는 행사가 조성되며, 모스크바의 시간으로 12시 15분(사할린 시간 오후 8시 15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모와 비애의 날'을 맞아 1분간 활동을 중지하고 목념을 한다.

6월 22일은 추모와 비애의 날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추모와 비애의 날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대조국전쟁의 전투로 전몰하신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을 생각하고, 강제수용소와 점령지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며, 우리는 다시금 6월 22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파시즘과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무기와 탄약과 식량을 전장에 보급하며, 평화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를 재건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사할린주에서는 지금 전몰장병의 묘지와 기념비에 불멸의 성화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람을 막고 있는 향로의 성화는 멀고도 항상 가까운 시절의 사건과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전쟁의 영웅과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상징이자, 우리 모두의 아픔의 상징이고, 가장 참혹했던 시기를 굳건히 이겨냈던 우리 국민의 저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몰하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길!
조국의 수호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

지난 19일(수)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에 도착해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러시아 대통령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중했다.

러시아 대통령 방문 일정은 정각 12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환영 의식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양국 국가 연주, 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을 마무리한 양국 정상은 함께 무개차에 탑승해 회담장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했다.

확대회담, 정상들의 일대일 회담이 있는 후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날 협정 체결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앞으로 양 국가 정부간 군사안보 분야를 비롯해 경제 및 문화, 보건 의료교육, 과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진정한 획기적인 문건"이라며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장기적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목표 및 지침들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19일 저녁에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떠났다.

(러시아 및 외국 매체 인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러시아 대통령 공식 사이트에서)

사할린주, 야말로-네넨크 자치구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험 공유

야말로-네넨크 자치구 정부가 실무차 사할린주를 방문했다. 야말로-네넨크 드미트리 아르투호브 주지사와 일행은 방문의 일환으로 의료, 사회복지, 주택공공사업, 건설, 도로사업, 주요 사업과 교육 분야의 현대적 기술 적용으로 작업 과정들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고품질의 신속하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할린 직원들의 경험들을 공유했다.

방문 이틀간 야말로-네넨크 자치구 방문단은 지역 행정에도 현대적 기술 도입과 사업 과정들의 최적화에 따른 사할린 주 정부의 경험을 연구했다. 이 기간 동안 방문단에게 사할린주 사무기획의 우수한 실무로서 1-300과 112 서비스, 노동생산성 분야에 지역 역량센터, IT-공원, '적극적인 교육' 훈련센터 등을 소개했다. 또한 이들은 '프리고로드노예' LNG공장과 석유가스산업단지 및 농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야말로 네넨크 자치구 주지사는 "우리 지역은 한편으로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북극에 위치하

고 있고, 사할린은 극동에 있다. 그럼에도 이 둘은 아주 유사하다. 우리 주의 인구분포나 경제구조도 유사하다. 우리도 석유, 가스 채취 지역으로서 우리의 문제들이나 성과도 동일하다. 우리가 좀더 가까이 알고 지내는 게 중요해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방문을 논의해왔다. 우리 방문단은 공동의 언어를 찾았고, 동료 간 좋은 사업적 상호관계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 이틀간 방문은 상당히 생산적이었고, 이는 향후 공동사업의 시작일 뿐이라고 믿는다."고 방문 소회를 밝혔다.

이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모든 디지털기술과 행정적 정책은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하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사람을 위한 만족과 편리함은 정부의 효율적 사업의 척도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우리는 의료와 사회적 분야, 기업 간 상호협력에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지역의 수장들은 방문 결과를 총결하고, 향후 지역의 경제적 유사성을 고려해 공동사업에 따른 계획들을 세웠다.

보건 분야에 50년을 바친 이봉유리 간호사

"병든 사람을 치료하도록 돕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일합니다"

지난 주말에 러시아에서 의료계 종사자 날을 기념했다. 신문지상에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보건 분야에 서 약 50년간 종사하신 분이다.

이봉유리(러시아 이름 라리사 와 실리에브나, 70세) 씨는 우글레고르 스크 구역에서 태어나 11남매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나 그 당시 는 살기가 바빠서 공부를 하고 싶어 도 대학에 대한 꿈을 꾸지 못했었다. 그러다 기회가 생겨 우글레고르스크 에서 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 회가 생겨 1년간 과정을 마치고, 크 라스노폴리에 마을로 돌아와 그곳 병원에서 약 8년을 근무했다. 이 마 을 병원에서는 환자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었었고 라리사 간호사는 어 느 한 부서에 전념하지 않고, 모든 진 료하는 의사들의 '오른팔'이 되어주 었다.

"그 당시 병원에서 간호사 셋이 돌아가면서 일했어요. 주야(밤낮 24 시간) 당직을 하고, 이를 쉬고, 근무 했죠. 힘들었어요. 간호사로서 주사 도 놓고, 다양한 시술도 하고, 외과의 도 돕고, 내과의도 돕고, 모든 의사들 을 도왔어요. 크게 외상을 입은 환자 도 돕고, 마비된 환자의 치료를 도우 며, 어린 환자들(10명 수용 어린이 병실 있었음)도 돌봐주었지요."라고 이봉유리 씨가 회상했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하는 일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 다. 또한 그녀가 일했던 크라스노폴 리에 의료기관 한 층에는 진료소, 다 른 층에는 병원이 있었는데 이봉유

리 간호사는 진료소 물리치료실에서 도 근무를 했었다. 그렇게 이 마을 병 원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훈인 후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 사를 오고, 간호사로 계속 활동하려 고 했는데 취직이 되지 않았다. 간호 사 1년 교육과정으로 간호사 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이미 아이 둘을 두고 있었던 28세의 나이에 사할린 의학 전문학교에서 2년간 간호사 교육과 정을 공부하게 되었다. 10살 정도 어 린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 고, 물론 실습시간이 되면 그녀가 그 간 익혔던 간호의 경험은 누구도 따 라가지 못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러 병원과 진료소 등에서 실습을 나가면 그 의료기관은 무척 반겼다.

"라리사 와실리에브나, 혈관에 놓는 주사를 잘 하시니, 이번에도 부 탁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요."라고 라리사 간호사는 웃으며 회 상했다.

1984년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 한 후 그녀는 주병원 소속 검진 진료 소에 파견되었다. 그후로 40년이 지 났고, 라리사 간호사는 계속 이곳에 서 일하고 있다.

"주 검진 진료소에는 주내 여러 곳에서 찾아옵니다. 주로 제대로 진 단을 받기 위해서죠. 여기에서 검진 을 위해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 어요. 저는 이곳에서 거의 모든 분야 의 의사들과 일해봤어요. 피검사를 위해 아침마다 2시간 동안에 약 50 명의 사람들에게서 피를 뽑고, 다른 검사실로 옮기고, 또 다른 업무를 하

였습니다. 80-90년대에는 제가 유명 한 고 김성환 외과 의사와도 함께 일 한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일반 외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심장 전문의, 외 상 전문의 총 4분의 외과의사와 간호 사 1명이 일했었어요."라고 설명했다.

현재 12년째 사할린주의 수석 내 분비과 의사와 함께 일하고 있고, 또 한 분의 내분비과 의사와도 함께 일한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인데 뭐든지 철저히 준비하는 스타 일이라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 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검진진료소에서 올바른 진단을 위해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고급 수준의 전문의들이 꽤 많 아졌다고 한다.

라리사 간호사는 내분비과 의사 들과 주로 일하지만 바쁠 때는 신경 외과, 알레르기과, 종양과의 의사들 을 돕기도 한다. 지도부에서도 라리 사 간호사가 이런 거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런 부탁을 하곤 한다.

"저는 직장에서 차를 안 마셔요. 일 을 해야 하나까요. 제 성격이 그래요. 의사를 돕느라 여유가 없어요."라고 라리사 간호사는 웃으며 이야기한다.

1년 전에 라리사 간호사는 고급 간호사 자격검정시험을 치르고 다 시 인증을 받았다. 이런 자격검정시 험은 5년에 한 번 실시된다. 그 외에 도 여러 분야의 전문 간호사 자격증 을 따냈다. 그중 반사요법, 부항 마사 지 등의 자격증도 있다. 라리사 간호 사는 치료법에서 생약초로 치료하는



것을 좋아한다. 약초를 이용해 사람 들의 질환이나 증세를 치료하는 법을 배우고 이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다.

라리사 간호사는 사할린 '은혜'교 회의 성실한 교인으로서, 의료계 종 사자로서 교인들에게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 약 13년간 유즈노사할 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중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제가 한 번 김복곤 씨(당시 사할 린 정의복권재단 지도자)가 주재한 회의에 갔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위해 여성을 선출해야 한다'고 김복곤 이사장이 말했거든요. 다들 저 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위 해 여성이 필요한지 설명을 안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를 차에 태워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 당시 시한인회 회장직 에 박종철 씨가 일하고 있었어요. 알 고 보니 노인정 할머니들을 위해 봉 사로 식사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이것 거절하지 못 했어요.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어르신 들의 식사를 하게 되었죠. 꽤 오랫동안 했었죠. 한 2-3년 전부터는 식사 준비 봉사를 그만두고 간호사로서 노 인정 모임 있을 때마다 할머니, 할아 버지들의 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도 측정하고 필요하면 약도 줍니 다. 약은 제 돈으로 챙기고요. 어르신 이 부항치료를 원하면 일요일에 교회 에 있는 공간에 초대합니다. 거기에 제가 시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 어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라리사는 노래 부르기 를 좋아하고, 악기 연주도 잘 했었다 고 한다. 크라스노폴리에에서 일할 때는 마을 합창단 단원으로서 공연 도 많이 했었다. 노래 부르는 지금 도 좋아한다. 한민족춤은 관심이 많 았지만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 그만 두게 되어 아쉽다고 했다.

그녀의 딸과 아들도 직업 면에서 엄마를 따랐다. 이들은 엄마처럼 사할 린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고, 딸은 간 호과, 아들은 치과를 전공했다. 둘 다 전공한 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 서 딸, 아들과 만나면 의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한다고 한다.

이봉유리 간호사의 삶은 참으로 바쁘다. 평일에는 간호사로서, 토요 일에는 사회단체 봉사자로서, 일요 일에는 교인으로서, 치료사로서 활 동하고 있다. 그리고 엄마이자 할머니로서 자녀와 손주에게 맛있는 반 찬을 해주는 것도 기쁨이라고 한다.

50년이라는 장기간을 보건 분야에 바친 이봉유리 간호사는 "아직 일을 그 만 둘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보 람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모든 과정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일하죠."라고 말한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섬의 극장들> 축제에 300명 이상 참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섬의 극장들> 첫 극동 열린극장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주내 여러 지역 들을 비롯해 모스크바, 니즈니 노브고로드, 무르만스크, 세르푸호 브 등지에서 학교 연극부, 미디어 센터, 아동 연극단 대표, 교사, 감 독, 배우, 극장 전문 직원 등 300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 교육부가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사할린 인형극장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연극 예술세계에서의 중요한 행사들이 펼쳐져 축제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문화에 깊이 빠졌다.

드미트리 스메칼로브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와 문화부가 인형극장과의 공동사업 덕분에 우리는 훌륭한 성과를 보고있 다. 사할린주의 100개 학교들에는 연극반이 있으며, 또한 '시 리우스'유형 영재센터는 <예술> 방면에서 수업 일정표를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에 초빙된 '인사이드' 모스크바 아동연극스튜디오는 축 제 시작으로 미니-스펙타클을 보여주었고, 오하, 노글리키, 샤흐쵸 르스크 등지의 학생 연극단들은 비경쟁의 연극 작품들을 상연했다.

На Сахалине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альные острова» собрал более 300 участников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с 13 по 16 июн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ёл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альные острова», который объединил более 300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Москвы, Нижнего Новгорода, Мурманска и Серпухов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Открыли главное событие в мире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куко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фестивале дети разви- вают свои таланты и погружаются в культуру.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министерств обра- 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с театром кукол, мы видим значи- тельные успехи. Более чем в ста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сть театральные студии. Также мы проводим смены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Искусство» в центре для ода- ренных детей по модели «Сириус», — рассказал зам-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Дмитрий Сماعيلов.

Сначала на фестивале показали мини-спектакли г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московская детская теа- тральная студия «INSIDE». Внеконкурсные постановки представили и театр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школьников из Охи, Ноглик, Шахтерска и других.

러시아 올림픽의 날, 사할린에서 30개 이상 스포츠 종목 선보인다

6월 23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 문화.휴식 시공 원 '코스모스' 운동장에서 사할린 주민들이 전 러시아 올림픽 의 날을 기념하는 가운데 행사에서 30개 이상의 스포츠 종목 이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방문객들을 10시부터 접수하기 시작한다. 또한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 비되어 <근로와 방어를 위한 준비 게임> 지역 간 축제 예선이 조성되며, 육상 경기, 국제 요가의 날을 기념하는 요가 축제도 진행된다. 또한 피겨스케이팅 종목 올림픽 챔피언 알렉세이 야구진과 수중발레(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종목 3관왕인 알 라 쉬스키나, 펜싱 종목 올림픽 챔피언인 아델리나 자기둘리 나를 비롯해 세계적 스포츠 스타들이 방문한다.

В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ставят более 30 видов спорт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23 июня островитяне отпраздную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На ме- роприятии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30 видов спорта. Площадки начнут принимать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с 10:00. Кроме того, ожидается насы- 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пример, в этот день состоится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Игры ГТ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забег и фестиваль йоги, по- свяще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Йог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сетят олимпийский чемпион по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Алексей Ягудин, трехкратная чемпионк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по синхронному плаванию Алла Шишкина, олимпийская чемпионка по фехтованию Аделина Загидуллина и другие звезды мирового спорта.

사할린에서 카마즈 트럭 끌기대회 열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서 카마즈 트럭을 끄 는 힘겨루기대회 우승자가 발표되었다.

러시아의 날(6월 12일)을 맞아 독특한 경기가 열려 300명 이상이 이 경기를 관람했다. 이 시합은 지역 도로건설부 측과 기업 및 지역 주민들에게서 사전에 지지를 얻어 예브게니 라 비츠키와 예브게니 체르보브가 개최했다.

시합에 티몹스코예, 네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스미르 니흐, 아니와에서 힘 좋은 장사들이 출전했다. 시합 참가자들 은 15톤 가량의 화물트럭을 장소에서 움직여 끌어내야 했는 데 심사는 올림픽체계에 따라 끌리는 속도가 지속적으로 유 지되는지를 평가했다. 시합 참가자들은 40m코스를 따라 끌 어야 했다. 10톤 화물트럭 끌기에 근로단체들을 대표한 출전 자들 14팀이 (한 팀에 8명으로 구성) 시합을 치렀다. 우승컵은 네웰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에서 온 참가자들로 구 성된 <판타스티체스카야 워시요르카(환상적인8)>팀이 차지 했다.우승팀에게는 상금으로 10만 루블리의 증서를 수여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турнир по перетягиванию КамАЗов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назвали победите- лей силового шоу по перетягиванию КамАЗов. О резуль- татах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8면에 계속)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의료계 대표들과 의료 발전 논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 지역 의료계 종사자들과 만나 보건 발전을 논의한 가운데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에 새로운 기술 도입 문제를 언급했다.

이날 의료인의 날을 맞아 사할린과 쿠릴의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시작으로 장기 근속 의료 전문가 20명에게 감사장과 명예증서를 수여하고, 현재 지역에 의료지원서비스를 주민들이 더욱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 업무와 기술과 장비와 새로운 병원 건물과 진료소에 새로운 접근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여러분들의 손에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대신해 주민들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돌봄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보건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 믿는다. 여러분의 수고는 지고 한 뜻으로 충만하고,여러분은 선택한 직업에 충실하게 임하고 계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최근 보건 분야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사할린 주민 15만 명이 종합검진을 받았고, 올해는 16만2천 명 이상이 검진을 받는다. 의사와 진료예약권의

여유도 30%나 증가했다.

'이동진료팀'기획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의들이 정기적으로 지방 마을들을 방문진료하여 1차 상담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기획을 실시하는 1년 만에 의사의 수도 61명으로 증가했고, 이들 모두가 고급 전문의들이었다. 한 달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16,000명으로 증가했다. 외딴 지역 및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지역 중심지나 중심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할린 지역에서 <건강 안내자>기획을 실시한 지 1년이 되었다. 이에 600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체계에도 인공지능체계를 도입하고 있어 사할린에서 지역 콜센터 1-300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시스템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고, 환자의 전화에 응답하며, 의사와 진료 예약을 정하고, 진료 방문시간 변경 및 취소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의사들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질병 진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서 요양 및 재활 방면도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호텔 단지들이 재활센터도 건설하는 가운데 이러한 시설들이 '고르니 위즈두흐'에 생길 전망이라고 했다.

사업을 위한 규제환경상태에 따라 사할린주, 러시아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 진행 중 전국 부문별 순위 결과들이 발표된 가운데 사할린주가 국내 지역들에서 투자기후상태의 전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게다가 규제환경상태 평가로도 1위를 차지했다.

러시아 지역들 대상 전국 투자기후상태의 집계로 순위 결정은 전략주도청이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사업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연방 행정자치지역 정부가 사업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계된다. 이에 운영되고 있는 연구소들, 사업지원 정책, 제반시설의 품질, 자원들, 규제환경상태를 주목해 고려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는 전국 투자기후 조사태평가에서 위신 높은 4위를 차지했다. 또한 우리 지역은 규제환경상태 평가에 따라 러시아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우리가 국내 다른 지역들보다 더 빠르게 기업들에게 건설 허가를 발급하고, 부지를 등록하게 하며, 가스와 동력제반시설, 난방,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시키고, 사업을 위한 소유권을 등록시키며, 필요한 국가와

지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화 작업이 큰 역할을 해냈다. 우리는 공공사업 기관들과 함께 최대한 행정적 장애들을 줄이고, 우리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우며,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하며 일해왔다."고 말했다.

사할린 지역에는 정부와 기업 간에 효율적인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할린주 기업권리보호의 전권대표인 안드레이 코왈렌코는 " '사업, 사할린, 온라인' 서비스의 지원으로 기업가들은 투자기획 실행에서 또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고, 답변은 보통 10일이나 30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사업연맹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할린주에서는 기업과 지역 정부와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해 사업상 실제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채택하고 있다.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농무 / 신경림

장이 올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통계를 뺄 수 없는 노릇입니다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당분간 이 시가 제일 유명할 겁니다. 티비 드라마에서 이 시를 두고 감론을박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거든요. JTBC <졸업>.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위험할 정도로 굉장하고 과열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경쟁을 위해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 때는 대부분 방문 학습을 신청하지요. 영어, 수학, 무엇보다 한글. 상상력 불어넣기 좋은 나이에 어차피 알게 될 학습을 다들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른바 선행학습.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받아쓰기 1백점 만점 받아야 하고, 영어는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 발음과 비슷하게 혀가 꼬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원어민 유치원에서 영어 배우고 온 애들 때문에 뭔가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분발해야지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집과 학교 그리고 다시 학원 스케줄을 도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중학교부터는 이제 뽕세지쥬(거세지쥬). 학교 수업을 대충 3시 경 마친다면, 다시 학원으로 고고(GOGO)! 열주 9시 10시까지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 죽어나는 거지요. 외고나 과고 가려면 애늬은이 다 돼야합니다. 표정이요. 애들 표정이 아니게 되거든요. 과부하에 걸릴 만큼 공부하고 있으니, 어둡다기보다 아무튼 이 세상 재미를 일주 다 터득한 분위기라고 해야할까? 삼성에 들어가면 얼마를 벌고, 안과 의사가 되면 6억 7억 정도의 연봉을 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 '자아 탐구'고 나발이고 뭐 있겠어요. 수학 잘하면 이왕지사 좀 더 공부해서 의대가는 게 장땡인 사회. 돈 잘 벌면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뭐든 먹고는 들어가니깐.

물론 세상이 모두 똑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잘버는 거 나쁘다고 생각한 적 없구요.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타인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아닐 테니."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사할린주에서 마약퇴치운동 진행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할린 지역 청년들 사이에 건강한 생활방식의 가치와 불법 마약거래 분야의 범죄예방 및 홍보 추진을 목적으로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연령대별로 행사들이 조성되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보처리 시간 진행, 건강에 대한 가르침, 토론, 질병예방적 대화, 활동, 경연, 전시회, 스포츠 행사 등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에 대한 자세 및 홍보와 관련된 예방책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이 캠페인의 주요 과제는 마약중독과 마약 범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비의료적 항정신성 약물 사용의 부작용과 마약 불법거래 참여의 책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방식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데 있다.

사할린 지역 사회보호부는 마약과 항정신성 약물, 알코올 중독자들과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에 따른 직통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사항은 전화(8 (4242) 670-883)로 할 수 있다.

사할린주 마약진료소에도 '전화상담'이 마련되어 있어 전화(8 (4242) 760-831)상담으로 알코올 및 마약 관련 예방, 진료 및 치료 문제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익명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Пхеньяне состоялис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19 июня побывал с дружественны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в Пхеньяне. Визит прошёл в теплой дружеской атмосфере.

На площади Ким Ир Сена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фициальной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им Чен Ыном, в ходе которой главы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представили членов своих делегаци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начались в расширенном составе и продолжались в формате один на один.

По итогам консультаций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Ын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двух стран.

Подписанный докумен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 заяв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 итогам саммит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овый документ придёт на смену Договору о дружбе и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1961 года, Договору о дружбе и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2000 года, Московской и Пхеньянской декларациям 2000 и 2001 годов.

Кроме того, в ходе визита в КНДР подписаны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соглашения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пограничног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 сделали также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Позже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Ын совершили прогулку по резиденции «Кымсусан» и посетили тор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рт, сообщаетс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ремля.

Тхэквондист с Сахалина завоевал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Спартакиады учащихся России

Сахалинец Евгений Кравченко поднялся на третье место на XII летней Спартакиаде учащихся России в Красноярс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язания собрали 200 сильней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из 43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Награды разыграли в 10 весовых категориях.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или пятеро воспитанников тренеров спорт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Дениса Кима и Чан Де Сира.

По итогам поединков Евгений Кравченко получил бронзовую медаль. Виктория Беляева, Алина Цой, Альберт Чан и Владислав Федоров остановились в шаге от призового места – они стали четвертыми.

Наставники остров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 столь огром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показали потрясающие поединки, в каждом из них чувствовались и выдержка, и упорств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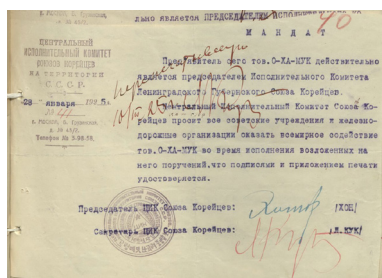


100 лет назад в СССР был создан Союз корейцев

10 июня 1924 года глава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наркома СССР А.И. Рыков подписал Устав Союза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положив начало созданию всесоюз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юза был избран уроженец Сеула, доцент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Леонид Петрович Хон Кимпио (1884-1938).

Основной целью Союза провозглашалась защита интересов своих членов, поднятие их культурного уровня и организация взаимопомощи.

На местах стали создаваться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рей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подчинялись ЦИКу Союза корейцев в Москве.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бы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Ленинграде, Благовещенске, на Донбассе, в Иркутске, Казани, Канске, Киве, Красноярске, Кургане, Минусинске, Могоче, Мурманске, Нижнеудинске, Ново-Николаевске (Новосибирске), Омске, Перми, Саратове, Ташкенте, Тобольске, Томске, Тюмени, Харькове, Якутске и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На момент расцвета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юз насчитывал 26 регио-



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Впрочем,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существовала недолго. Уже в феврале 1926 г. на заседании секретариата ЦК ВКП(б)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ликвидации Союза корейцев. Официально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роспуска Союза стал тот факт, что деятельность его центра в Москве, вдали о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де проживало около 90% все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а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й. Однако в секретной переписке НКВД СССР отмечалось, что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в 1925 году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уществование официа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СССР следовало бы прекратить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причинам.

Документация ликвидированного Союза корейцев была передана в архив и сейчас в довольно неплохом состоянии находится на хранени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рхи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Р-8356).

Доку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t.me/saramkor>

От «Лукоморья» до «Письма Татьяны»: в Омске прошли Пушкинские чт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омичи. К чтению строчек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по-корейски подключились жители еще семи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В будущем планируется телемост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Омском.

Ом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т конкурс уст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прежние годы участники, к примеру, писали эссе и рассказывали их устно, играли в КВН. В 2024 году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ло уже седьмым по счету и снова прошл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ороде Иркутске. Однако впервые его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формате «Пушкинских чтений».

—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развитие патриотизма и укрепление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Ом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Татьяна Сим.

Заявки поступили от участников от 9 до 55 лет. Все он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авыки устной речи, свободного говорения и хорошего произношения.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им. А.С. Пушкина 26 омичей соревновались между собой на сцене, а затем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 конкурсанты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Томска, Элисты, Находки, Екатеринбурга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Почётным гостем «Пушкинских чт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в Омске стал граждани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фессор 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лмыц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осподин Пэк Ду Сонг (г. Элиста).

Он вошел в состав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Кроме того, оказал помощ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в переводе поэт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А. Пушкина, которые выбрали участники, с русского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Господин Пэк Ду Сонг отметил, чт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чень любят творчество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в 2013 году в центре Сеула установили первый в стране памятник. Этот факт положил начало ежегодным Пушкинским чтениям в столице Южной Кореи. В 2023 году они были девятыми по счету.

Жюри оценивало чтецов в дву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 «9-14 лет» и «15 лет и старш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произношению, содержанию и объёму произведения, артистизму и видеопрезентации, подготовленной для выступления.

— На конкурс подготовил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Я вас любил...». Конечно, волновалась, так как впервые участвую. Корейский я учу с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это не единственный язык.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грамматика, на мой взгляд, у него сложнее, чем у китайского. Но всё равно мне он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хорошо звучит. Планирую стать переводчиком и связать свою жизнь с азиатскими языками, – поделилась 11-летняя Алиса Маковецкая.

«Признание», «Узник» и «Зимний вечер», «Храни меня мой талисман» и «У Лукоморья дуб зелёный», «Няне» и «Письмо Татьяны к Онегину» – эт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известные строчки Пушкина услышали сидящие в зале.

— Благодаря «Пушкинским чтения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жизнь становится разнообразнее и интереснее. Всегда здорово изучать что-то новое,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аких культурных проектах. Я благодарна организаторам, что в Омске есть та-



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участница конкурса Аделина Днищева.

Член жюри кандидат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Омского ГАУ Людмила Сон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первых в Омске «Пушкинских чтений»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Пушкин для нас всех – величина номер один. Это писатель, поэт, перед которым преклоняется весь мир,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еще раз доказывает, как велика Россия и ее дети. Преклоняюсь перед ю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их родителями, оказавшим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Будущее нашей страны – за теми, кто любит и уважает Пушкина. Слушать его строчки на корейском – нечто особенное. И все конкурсанты справились с этим на достойн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а Людмила Сон.

Участникам вр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а победителям – награды. А также – подарки и сладкие призы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спонсоров. Кроме того, занявшие 1 место Вера Давыдова (младшая возрастная группа, Сибирская школа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Храни меня мой талисман») и Владислава Шемякова (старшая возрастная группа, музыкальное училище им. Шебакина, «Зимняя дорога») удостоились специальных грамот от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ороде Иркутске. Еще две аналогичных награды дадут право омичам на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Остальные призовые места среди омичей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2 место – Алиса Маковецкая (младшая группа, школа №120, «Я вас любил, любовь ещё, быть может» – Аделина Днищева (старшая группа, «Мы любим тех, кто нас не любит»)

3 место – Александр Лем (младшая группа, школа №34, «У Лукоморья дуб зелёный») – Виктория Тапехина (старшая группа, «К» («Я помню чудное мгновенье»)

Онлайн-призеры: 1 место – Владимир Сим (младшая группа, Находка, школа №3, «Я знаю край, там на брега» – Юлия Гец (старшая группа, Владивосток, «Люби все возрасты покорны»)

2 место – Анастасия Бурцева (школа «Динами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Цветы последние милей») – Мария Шишова (УрФУ, Екатеринбург, «Ночь»)

3 место – Карина Науаева (ТГУ, Томск, «Красавица») – Елизавета Евчук (КалмГУ, «Письмо Татьяны к Онегину»)
(Вечерний Омск, 9 июня 2024 г.)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Усилен режим охраны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усилили режим охраны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до уровня, который предшествовал заключ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от 1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Врем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о реагировании на экстренные ситуации сокращено до минимума. С 1 ноября 2018 года до приостановки действия документа при возникновении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й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на суше и в море реагирование подразделялось на пять этапов – две серии устных предупреждений, две серии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х выстрелов и огонь на поражение. В воздухе действовали четыре этапа -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е сигналы, блокирование объекта,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е выстрелы и огонь на поражение. Теперь число этапов сокращено.

Президент РК вернулся из поездки по странам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16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ину по завершении сер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визитов в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Целью посещен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стало обеспечение поставок важнейших минералов. Во всех трёх странах Юн Сок Ёль представил инициативу K-Silk Road,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создание новой модел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утём объединения инновацио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РК с богатыми ресурсами и потенциалом развит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РК подписала со всеми тремя странами партнёрские соглашения о нормализации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важнейших минералов. Отдельные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ми странами подписали круп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 частности, Hyundai Rotem заключила контракт с Узбекистаном стоимостью 20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оставку шести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В 2025 году в Пусане пройдё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мор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проведёт в 2025 году в Пусане международную морскую конференцию, на которой будут обсуждаться такие вопросы как загрязнени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борьба с незаконным рыболовством и сохранение морского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Тема конференции - Our Ocean, Our Action. Как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ан Дон Хён, успешно проведя конференцию, РК укрепит свои позиции одного из мировых лидеров в профильной области. Конференция,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8 по 30 апреля будущего года в Пусан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ВЕХСО, соберёт порядка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из ста стран мира.

В больнице СГУ началась бессрочная забастовк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529 профессоров-медиков, работающих в четырёх филиалах больницы Сеу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ГУ), которые расположены в Сеуле и его пригородах, начали 17 июня бессрочную забастовку. Они поддержали требование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отменить инициированную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едицинскую реформу,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частности, увеличение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стачечного комитета, лечение пациентов не прекращается полностью.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лечение лишь тех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лечение в других больницах или на чьё состояние не повлияет временная задержка лечения. На 18 июня Корейская медицин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назначила всеобщую забастовку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котору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звало незако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тремится привлечь в страну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17 июн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ъявило программу мер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в страну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Он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птимизацию процедур въезда и улучшение работы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Хотя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осстановилось до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уровня, доходы от туризма пока меньше, чем в 2019 году. Это связано с переходом от групповых туров к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оездкам.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тенденцию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сократить сроки выдачи виз для граждан стран с растущим спросом на поездки в РК,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визовых центров. Для упрощения въезда будет расширена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ых виз и применение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читывания паспортов.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сов из провинциальных аэропортов РК. Активизируется работа службы доставки багажа туристов со станций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KTX в отели, появятся транспортные карты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упростить систему въезда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круизных лайнеров.

RKI

Межкорейские "листовочно-мусорные бомбардировки" провоцируют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23)
Юг реагирует болезненно

Судя по ответу Пхеньяна, КНДР, похоже, прошла "этап болезненной реакции"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листовки. Если говорить точнее, то, как правило, листовки с территории Юга обычно направляют бывшие перебежчики из КНДР, которые перешли в Южную Корею и тепер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едут борьбу с режимом Ким Чен Ына. Иногда им также помогают и сочувствующие из числа "коренных южан", но главные инициаторы - перебежчики.

Тем не менее, в любом случае, и перебежчики, теперь уже граждане Юга, да и ныне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как видно, не пытается им мешать. Так или иначе, если ранее Пхеньян, как мы уже говорили, обещал обстреливать территорию Юга, что провоцировало напряженность, то теперь, как видно, нашел способ реагировать менее опасно и при этом весьма эффективно.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судя по действиям, оказался застигнут врасплох и весьма сильно нервничает. Так,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есколько министр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и сам лидер РК несколько раз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и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публично назвав их "недостойными норм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арварскими", "иррациональными" и обвинив КНДР в наруш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Данные высказывания были сделаны не тольк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Сеуле, но 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ах, где бы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что привлекло к "листовочно-мусорным бомбардировкам" внимание мир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равда, спровоцировав также и ироничные комментарии среди зарубеж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гда те узнали, чем именно "обмениваются" Юг и Север в своем принципиальн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Кроме того, из-за "нашествия" "фекально-мусорных"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из КНДР в воскресенье 9 июня, несмотря на выходной, в экстренном порядке был созван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где обсуждался возможный ответ Сеула. Кроме того, вс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К также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в режим "обычного дня", когда были отменены увольнения, в части были вызваны офицеры и солдаты, которые следили за летящими из КНДР воздушными шарами, а потом бегали за ними по горам, деревьям и городам и собирали выпавший из них мусор.

Листовки Югу можно, а Северу мусор - нет?

Даже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заявления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Сеула вызвали споры - заброс мусора северянам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властей РК, является "наруш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Одновременн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заброс с Юга на Север листовок считают уже "законным выражением принципа свободы слова" и не воспринимают эти акции как нарушение общепринятых законов.

Мног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указывают, что такая логика, мягко говоря, спорна. Те же листовки и флешки,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прилетают в КНДР из РК, также не способствуют чистот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а потому по сути являются тем же мусором.

Кроме того, также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о этой логике можно на дачный участок соседу кидать макулатуру, мотивируя это "свободой слова", и обижаться, когда в ответ прилетят ветки, ветошь и прочий мусор. В целом заброс любых предме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ю другой страны является весьма провокационным шагом, кем бы он и под каким бы предлогом ни проводился. Однако, судя по мнению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если наши листовки летят на Север, то это можно, а если северный мусор прилетает к нам - это уже варварство и наруш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Именно пародируя этот подход, Ким Ё Чжон и поиздевалась над Югом,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в "мусорную бомбардировку" и пообещав аналогичные ответы и в будущем.

Ответ К-роп-ом и стрельбами

Если бы все ограничилось "бартером мусора на листовки", то над этим можно было бы лишь посмеяться и даже в чем-то порадоваться, хотя бы с точки зрения того, что это куда лучше, чем стрелять друг в друга из пушек, пулеметов или угрожать ракетами, что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исходило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Однако, как теперь очевидно, Южная Корея либо так близко восприняла воздушные шары с мусором к сердцу, либо просто использует их как предлог, но пошла в своем ответе еще дальше.

Для начала отметим, что Юг планирует возобновить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е вещание на КНДР через границу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видеозэкранов и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в 2018 году в период межкорейского потепления и попыток налад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хеньяном. В целом можно тоже было бы посмеяться, сказав, что "Юг собирается также ответить остроумно: в ответ на мусо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олдатам-пограничникам начнут крутить зажигательные песни и видеоклипы К-рора, где суровые души бойцов Страны чучхе будут бередить сексапиль-

ны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евички в миниюбках, призывая к побегу". Смех смехом, 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читают, что вещание песен и клипов серьезно подрывало боевой дух северян и многих сподвигло на побег. Власти КНДР же ранее тоже обещали ответить не очень адекватно, грозя "накрыть"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и выстрелами из систем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Впрочем, на все это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и иначе. До этого КНДР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оводила и стрельбы из десятков стволов артиллерии, и запуски самых разных ракет - как крылатых, так 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 но Сеул "держался", не решаясь "пустить в дело К-роп". И вот только после прилета мусора, который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возму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 прибегнуть "к крайнему средству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й войны - песням и видеоклипам".

Однако оставим шутки в стороне. Помимо вещания,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я которого Сеул пока тольк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на днях Южная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ла, что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щает действ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по мерам по снижению воен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которо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предыду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Пхеньян в 2018 году. Данный договор,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ъективно,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не соблюдался Пхеньяном,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л рядом с границей стрельбы и вел разведку, что соглашение запрещает. Север же обвинял Юг в нарушен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и возобновл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с США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военных маневров.

То есть КНДР в любом случае соглашение уже не соблюдала, Юг тоже частично его отменил, возобновив разведку, но до сих пор избегал проводить учения и стрельбы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Теперь Сеул заявил себя свободным от этих ограничений, что стало одним из ответов Юга на направление Севером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мусором.

"Листовочно-мусорные дуэли" могу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с жертвами с обеих сторон

Проблема тут в том, что все это: стрельбы и учения как северян, так и южан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границы - резко повысит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 район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Кроме того, стоит помнить, что в Желтом море есть Северная разграничительная линия, которую КНДР не признает, считая неверно и невыгодно для Пхеньяна прочерченной. А именно стрельбы Южной Кореи в районе этой линии с острова Ёнпхёндо в 2010 году привели в итоге к артиллерийской перестрелке Севера и Юга с десятками жертв с обеих сторон.

Южная Корея также заявила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учений в районе границы, а также стала привлекать союзника к акциям устрашения КНДР: на днях в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ад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побывали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США, и самолеты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и прочая техника.

Можно ожидать, что Сеул на этом не остановится и дело явно не ограничится "только показом видеоклипов", а все будет куда серьезнее, в том числе с более активным привлечением возможностей как США, так и Японии, с которыми в последние пару лет консерватив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тало выстраивать в регионе подобие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юза.

Безусловно, КНДР это также не оставит без ответных действий типа запуска ракет, военных спутников, масштабных стрельб, и даже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и давно уже обещанных очередных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итоге все может прийти к тому, что, стартовав с достаточно комичных "обменов" мусора на листовки, что выглядело весьма мирно, Юг и Север быстро дойдут д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и стычек, где в дело пойдет оружие, и появятся жертвы. Нельзя также сбрасывать со счетов и фактор роковой случайности, значение которого усиливается в моменты напряженности, когда какой-то незначительный инцидент или стечение случайных факторов могут сами по себе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стычку, которую никто не хотел и не планировал.

Понятно, что базовая проблем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наличии на Юге и Севере у власти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которые никак не настроены на компромисс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руг с другом, а наоборот, ищут повод, чтобы "поддеть", "зацепить" друг друга, нанеся оппоненту болезненный укол, "удар по носу", чтобы доказать св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и удаль. Тогда уже "мусорно-листовочные бомбардировки" Юга и Севера будут вспоминаться не как что-то забавное и необычное, а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небольшие куски снега, которые в итоге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лавину в виде конфликта с применением оружия.

Вероятность же подобного сценария весьма высока: в Южной Корее ряд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же заявили, что продолжают направлять листовки в КНДР, Пхеньян гарантировал "ответ по уже проверенной эффективной схеме", а дальше можно ожидать новых идей с обеих сторон - только уже с задействованием оружия и техник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На Сахалине планируют поставить оперетту «Летучая мышь»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провели встречу с сахалинской театральной молодежью в Чехов-центре. Начинающие артисты и студенты узнали об открытии филиала Щукинского училища, новых музык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ках и о большом будущем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островах.

На встрече собрались молодые актеры Чехов-центр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кукол,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участники театральной студии «Счастливый случай» при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и лаборатор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ивхгу» при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и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поздравили молодежь с началом Фестиваля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ый на две недели сдела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еатральной столицей. Зрители увидят лучшие постановк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театров, которые выбирали эксперты. В их числе – «Записки сумасшедшего» по повести Николая Гоголя от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хов-центра.

– Мы рады, что фестиваль из Хабаровска в этом году переехал к нам на Сахалин. Это большой подарок и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для ценителей искусства. Мы намерены серьезно развивать театр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этому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создать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ервы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Считаю, что молодежь должна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 творчестве здесь, на нашем острове,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уже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предметы, которые связаны с разработкой сценариев, режиссурой, сценическим мастерством, для начинающих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будут вест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этого крупнейше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вуза.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поддержал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и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 может стать кузницей творческих кадров для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Создание филиала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 это большая задача, но Сахалину она по плечу, – считает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 Чехов-центр уже много лет удивляет зрителей и критиков свежестью постановок. Театр не боится приглашать разноплановых режиссеров, экспериментировать, ставить оперетту.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здесь никакой роли не играет. Это вопрос кадров,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и горящих своим делом людей. В этом смыс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йчас – место силы, где велик интерес создавать новое.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культурная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вышла на новый вито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здали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и впервые поставили оперетту «Княгиня Чардаш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арить поклонникам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атра оперетту «Летучая мышь» композитора Иоганна Штраус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артистами собираются поставить рок-оперу «Юнона и Авось» – для этого уже пригласили режиссера и хореографа.

– Сегодняшняя встреча меня очень воодушевила. Когда общаешься с такими масштабными личностями, как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это не может не вдохновлять. Обрадовало и то, как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у нас театру. Для меня это мотивация учиться и творить. Я искрен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чтобы искусство на островах развивалось и хочу приложить к этому душу, – поделилась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Полина Калинина.

Сфера культуры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ся. У новой сцены Чехов-центра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кинотеатра «Комсомолец»)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 современное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с террасой и кафе. Проектируется филармония на тысячу мест, 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оборудуют акустический зал, где смогут выступать оркестр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развитие медицин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рофесси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третился с медицинскими работниками и обсудил развит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регионе. На встрече затронули вопрос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внедрения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боту.

Встреча началась с поздрав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За долгие годы труд около 20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луч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и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регионе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становится доступнее для жителей.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подходы в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технологии, оборудование, новые здания больниц и поликлиник.

– В ваших руках жизнь и здоровье людей.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хочу сказать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труд и заботу о земляках. Нам еще многое вместе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по развитию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верен, у нас все получится. Ваш труд наполнен высоким смыслом, и вы преданно служите выбранной професси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достижений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тало повышение ее доступност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150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прошли комплексную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в этом – обследуются еще 16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На 30%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свободных талонов к врачам.

Так же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оказывает проект «Мобиль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бригады». Профильные врачи регулярно выезжают в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и проводят первич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осмотры. За год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оекта количество врачей увеличилось до 61 человека, каждый из них – специалист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А количество принятых за месяц пациентов выросло до 16 тысяч. У людей в малых и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теперь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помощь, не выезжая в районный ил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Уже год в регионе работает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Более 600 медицинских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пациентам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Главврач Невельской ЦРБ Михаил Ясков предложил перенести опыт программы и в другие отрасли.

–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мы решаем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медициной, возникают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соцзащитой. Можно ли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такого проекта в соцзащите, может в другом формате, но, чтобы диалог был такой, как и у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 предложил Михаил Ясков.

– Я думаю, что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этот проект и дальше. Будем слушать стороны, кто взаимодействует. И я говорю всем, и медицин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и пациентам, и проводникам здоровья, что у нас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ресурс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мочь каждому человеку. И я думаю, что перенести в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системное решение из медицины вполне реализуемо,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недряют в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На островах занимаются разработкой робота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лл-центра 1-300.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сможет выполнить простые задачи: ответить на звонок пациента, записать его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перенести время визита или вовсе отменить его. Такая помощь сможет упростить работу врачей и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качество диагнос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 Планируется ли в нашем новом кампусе технологии, связанные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Потому что нам в медицине нужны будут такие кадры, которые бы нам помогли развивать наш медицинский сервис, – уточнили у главы региона.

– Мы уже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у нас появились инструмент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В медицин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главное. Мы хотим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мог принимать решение наряду с врачами, – добав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в регионе развивают и курорт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Так, гостиничные комплексы уже строят с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ми центрам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появится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Около 800 тысяч однолетней и многолетней рассады вырастит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в этом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работу нового тепл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рупней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совхоза на улице Украинско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совхоз планирует вырастить до 800 тысяч однолетней и многолетней рассады.

В ходе визита главе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ли технологии, используемые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а также основные виды цветов, которые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украсят областны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 Вся эта красота, которую мы сегодня увидели, совсем скоро будет радовать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Важно, что совхоз поставляет свою рассаду не только по Сахалину, но и на Курилы. Мы прикладываем много усил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ши города были не только комфортными, но и красивыми. Напомню, в этом го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красит миллион цветов. Вс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также должны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 озеленения на время летнего периода,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на Украинской оснащен всем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здесь круглогодично выращивать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ы. Торф для рассады закупают местный – в селе Мицулевк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отлажены вс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по созданию и поддержанию микроклимата, необходимого уровня освещения, влажности и полива, которы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зных формата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ыращиваемых культур.

В тепличном комплексе выращивают тюльпаны, которые радуют островитян в весенний период, а также однолетние и многолетние растения, которые мы видим летом на улицах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ласти – петунии, бархатцы, пеларгонии, бегонии, виолы и другие виды. Порядка 80% выращенных цветов закупа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ледом идут Оха и Корсаков. Рассад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а в фирменных магазинах совхоза. Ее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садоводы-любители.

– Сегодн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наш тепличный блок. Мы гордимся этим высокотехноло-

гичным сооружение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тому что в его создании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есь наш коллектив. Сегодня, после масштабной проведенной работы, это соврем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 нов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Здесь мы выращиваем цветочную и овощную рассаду, тюльпаны, зеленные культуры,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Виктор Бутков.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посетил фирменные магазины «Тепличного». Здесь он пообщался с посетителями и сотрудниками, а также осмотрел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на прилавках ассортимент, оценил его разнообразие и качество.

Отметим,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находится в регион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на Украинской введен в 2021 году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рассады овощных и цветочных культур. Его площадь составляет 0,92 га. Комплекс задействован круглогодич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епличный» произвел в нем 735 тысяч тюльпанов на срезку и 950 тысяч штук цветочной рассады. Сейчас агрономы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рабатывают вопрос расширения ассортимента, выращиваем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мплекса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мимо цветов, здесь также растет редис и зеленные культуры.

13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представя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Островные эксперты одобрили 13 заявок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в ДФО.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За выделение средств поборются про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из 12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Курильска, Макарова, Холм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первые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 Анива, Оха, Ноглики, Поронайск, Южно-Курильск.

Так, Холм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представил проект «Зеленая гаван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и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арка на улице Шевченко». В 2023 году муниципалитет уже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удалось приступить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рибрежной территории на площади Мира.

– Проект важный и нужный, поскольк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а в связи со сложным рельефом и сложившейся застройкой отсутствует благоустроенное зеле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Была выбрана территория, которая уже стала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жителей, там располагается лыжная станция, проходит несколько эколог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парк станет местом для развлечения, общения и отдыха жителей вс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велопешеходной трассы, танцевальной и игровой площадок, мест для отдыха с беседками и мангальными зонами, – поделилась главный архитектор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Екатерина Иванченко.

От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оступило две заявки с проектами –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пешеходной лестницы со смотровой площадкой и п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ю территории маяка. Поронайск предлагает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площадь имени В.В. Пермякова и прилегающие к ней территории. В Ногликах хотят обустроить набережную у парка «Застава», а в Макарове – создать аллею «Северный ветер» на улице Хабаровской.

– Бюджет конкурса, выделяемый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победителей,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й, что позволяет воплощать глобальные проекты парков, скверов и набережных. Радует, что к участию подключаются новые города. Бесспорно, процесс оформления заявки довольно трудоемкий, основной упор делается на вовлечение жителей и учет их пожеланий.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с людьми, уточняются все нюансы, начиная от того, каки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они хотели бы видеть и к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дальнейшем там проводить,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иктория Доля.

К примеру,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хотят благоустроить сквер имени А.П. Чехова «Сны о Сахалине». В разработке проекта свыше 2 тысяч жителей приняли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Состоялось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анкетирование по сбору предложений, а такж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выбор наз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и обновленного парка.

– Долинцы хотели бы видеть на месте сквера,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не благоустроен и требует обновления, площадь познавательных активностей, дополненную фонтаном, навесами от солнца, сценой. Озелене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саженцами вишни и сакуры, – поделилась вице-мэр Долинска Ирина Гаврилю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формированные пакеты документов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Минстрой России. Ежегодно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яется общий призовой фонд в размере 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который распределяется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инстрой России впервые запустил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отдельно для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11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из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Холмска, Курильска,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모스크바는 천지개벽 중이었다. 곳곳에 건물 공사가 한창이고, 버스와 지하철, 트램바이(전차) 차량이 전부 신형으로 교체됐다. 거리의 시민들 표정에도 전쟁의 그늘은 없었다."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스크바를 다녀온 박종효 전 모스크바대학교 교수(87·역사학 박사)가 전한 말이다. 박 교수는 27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방문 소감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언론이 전하는 러시아의 모습은 온통 회색빛이었으나, 박 교수는 "모스크바는 새로운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넘실뒀다"라고 전했다. 서울~모스크바 직항이 없어져 과거 9시간이면 갈 수 있었지만, 중국 상하이를 거쳐 모스크바 땅을 밟기까지 16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년 만에 처음 찾은 모스크바는 환골탈태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 아파트와 연립 주택을 제외하고 시내 모든 사무용 건물과 정부기관 그리고 지하철 입구에는 검색대가 설치돼 있었고 어김없이 경찰관이 서 있었다. 택시는 길에서 자유로이 불러 탈 수가 없었다. 스마트폰으로 얀덱스(Яндекс·택시 호출시스템)에 접속해 택시를 불러야 했다.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보였다. 그동안 버스, 궤도 트램바이, 지하철 차량은 모두 산뜻한 신형으로 교체돼 있었다. 모스크바강을 따라 운행하는 수상 트램바이(수상버스)가 새로 등장해 이채로웠다.

작년 GDP 성장을 3.2%의 활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1.4%)의 두 배가 넘는 3.2%였다. 그러나 숫자로만 파악할 수 없던 활기가 도시에서 느껴졌다. 행인들의 얼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자유스러워 보였다. 동방학 연구소 한국 과장과 중국 및 현대 아시아 문재연구소(전 극동문제연구소) 한국 과장, 모스크바 대학 교수, 카레이스키(고려인) 협회 회장 등은 물론 고려인 은행원과 의사들과도 만나 동포들의 여러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스크바시의 전반적인 모습은 4년 전,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보았을 때와 판이하게 변해 있었다. 도심의 제외하고 시 곳곳에서는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하얀 도화지(圖畫紙)에 새로운 도시를 제도(製圖)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도시 외곽 곳곳에 아름답고 다채로운 건물과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었고, 새 도로와 지하철 제2 순환선이 국제적 수준으로 건설되어 있었으며 대규모 놀이터가 들어서 있었다.

서울의 재개발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도시 전체를 새로 짓는 방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소련시절에 건축된 조립식 아파트는 산뜻하게 보수를 마쳐 새로 건축한 아파트 같았다. 그리고 아파트 출입구의 목재 현관문은 철제문으로 교체되었으며, 각 아파트 호실과 연결된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었다. 흐루쇼브 시절 지어진 3-4층 높이의 연립주택은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곳이 많았다.

한국 정부가 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학계 인사들은 의외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태도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이기에 미국 주도 대러시아의 제재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다. "한국 대통령이 굳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까지 하고, 미국과 폴란드를 우회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나토와의 이해를 위해 이웃 국가로 벌써 100년이 넘

"모스크바는 천지개벽 중이다"

[박종효 교수 여행기] 최근 모스크바의 실정과 한국판 새로운 발전의 기대와 희망이 넘실대는 모스크바 보안 강화됐지만, 행인들 표정에선 자유로움 넘쳐 고려인들 '제재 참여해도 그리 지나칠 필요 있었나?' 우크라 전쟁 뒤 '무심한 조국'은 다시 멀어지는 듯

는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파기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소련 붕괴 직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투자에 성공한 한국의 삼성, 현대, LG 등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영업활동을 전부 중단시킨 것 역시 한·러 양국 간의 우호는 물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매우 애석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제재에 참여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의 외교적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동포들은 "한국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49개국 중 어떤 나라든 러시아 내에 한국만큼 많은 동포를 두고 있지 않다. 제재 참여가 불가피했다더라도 우리 동포들의 존재를 들어 최소한의 연결망을 유지했어야 했다. 그제 주권 국가의 외교가 아닌가? "한국의 과도한 친미 정책으로 인해 약 20만 명의 러시아 고려인 동포들에게 모국과의 통로인 직항 항공노선을 차단해 모국에 대한 기대에 큰 상실감을 주고 말았다"고 입을 모았다.

러시아 외교부에는 한국과, 북한과가 따로 설치돼 각각 학술협력과 경제협력, 문화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애착과 호감을 느낀 90%가 넘는 고려인과 많은 러시아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 대기업들도 최소한의 생활활동이라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단 한 편의 직항노선이라도 남겼어야 옳았다는 지적이었다. 모스크바에 러시아 제재 이전에는 한국인이 약 5,000명 살았으나 현재는 400~500명 선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고려인의 배신감

고려인 동포들이 모국에 느끼는 배신감은 자못 컸다. 1937년 스탈린이 극동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킬 때 느꼈던 나라 없는 국민의 설움을 상기하였다. 당시 러시아 고려인의 약 70% 정도가 한반도 출생이었다. 일제는 이 점을 들어 "고려인은 일본인"이라며 소련 정부에 항의라도 했다. 송환도 요구했다. 그러나 소련은 '국제법상 거주지법이 출생지법에 우선한다.'며 일본의 항의를 무시하였다. 해방 이후는 물론, 1990년 한·소 수교 30년이 넘도록 한국 정부는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해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고 한·러 관계가 발전하면서 '다가온 조국'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반가웠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려인 동포에 무관심한 조국이 다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러시아 고려인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불만도 많다. 러시아에는 고려인 동포가 약 20만 명이 거주한다. 5년 전 인구조사로는 16만 명이었지만 소련 해체 뒤 경제난 탓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가 러시아에 재귀환한 동포가 많다. 모스크바에만 5만 명이 산다. 러시아 고려인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흩어져 사는 고려인들은 서로 친인척이 많아서 같은 한 분파로 봐야 한다. 전체 약 50만 명이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실 한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종효 교수가 작년 가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효 교수 제공

푸틴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대해 동포들은 대부분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본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지방을 경계로 휴전이 성립된다면, 서부는 곧 분열하여 러시아에 통합될 거다. 우리는 러시아가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러시아의 전쟁 목적도 달성될 거다."

그러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국이 지금처럼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아니면 우호적인 관계로 회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에서 87.34%의 득표율로 6선에 성공했다. 2030년까지 임기를 확보했다. 러시아 국내에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푸틴 대통령은 소련 시절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으로 정보 전문가다. 독재자라는 말을 듣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박종효 교수가 작년 가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효 교수 제공 "포탄 100,000발의 미국 수출을 재고 애주시요.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져 살상 무기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리에게 귀중한 이웃 수교국입니다."

박 교수가 지난해 가을 용산 대통령실 앞과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각각 한 차례씩 1인 시위를 하면서 들고 나간 손팻말에 적은 글이다.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시위였다. 그런 그가 홀로 시위에 나선 것은 20여 년 동안 연구자로, 교수로 체류했던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우려해서였다. 무엇보다 고려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다. 박 교수는 모스크바 방문기를 <시민언론 민들레>에 전하면서, "러시아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교수(87)

△러시아연방 아카데미 러시아 역사 연구원 박사 △모스크바 국립대 교수

△저서. <격변기의 한·러 관계사> <한반도 분단의 기원과 러일 전쟁> <러시아 연방의 고려인 역사> <러시아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집 I, II> 등.

(민들레 들판, 2024.04.27)

인천시 '1천만글로벌시티' 사업 본격 가동

경제청, 28일 송도에 '세계한인 무역단지' 조성 발표한인 비즈니스 거점 및 청년 스타트업 기업가 양성대형 종합병원 등 글로벌 한인 타운 조성도 검토

인천시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0만 글로벌시티'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글로벌 화교(華僑) 자본이 성장 동력이 된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인천시가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에서 시작했다. 인천시 인구 300만명과 재외동포 700만 인구를 합치면 1000만 인구가 된다.

인천은 1902년 말 121명의 이민 행렬이 고종 황제의 허가를 받아 일본을 거쳐 1903년 초 86명이 미국 하와이 땅에 도착하면서 한국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도시다. 이런 이민의 역사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5월 8일 서울·광주·경주 등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기념 시민대회를 열면서 ▲재외동포 거점 도시 조성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육성 ▲디아스포라(해외 정착 재외동포) 가치 창조 등 1000만 도시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현지시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 뉴저지에서 재외동포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계한인무역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아이코어시티' 사업부지 내 5만5천570㎡ 부지에 지상 35층짜리 건물 2개동과 함께 마이스(MICE)와 각종 상업 시설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물 1개동에는 세계한인무역센터 업무 시설과 함께 세계한인무역협회를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재외동포청, 각종 외국인 투자기업 등 한인 비즈니스 관련 기업·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건물은 제2 인천스타트업 파크인 '글로벌창업센터'로 조성해 국내의 스타트업과 투자·금융·컨설팅 기관 등을 들여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인 스타트업과 청년 무역인을 육성하는 한편 마이스 시설과 연계해 한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욕지회와 뉴저지지회 소속 한인 기업인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정주 환경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진출하고 연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한인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한인타운 조성계획을 밝혔다. 당시 유 시장은 "고국으로 돌아올 재외동포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의료서비스도 중요하다"며 "글로벌타운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후보지 몇 곳을 대상으로 부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는 2015년도 시작된 1단계 송도아메리칸 타운 조성사업이 2018년 끝난데 이어 내년 말에는 2단계 프로젝트를 완성된다.



유정복 인천시장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Необычное состязание прошло в День России. Зрители стали больше 300 человек. Шоу организовали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Евгений Лавицкий и Евгений Червов, которые заручились поддержкой со стороны местного ДРСУ, предприятий и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Между собой соревновались силачи из Тымо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мирных и Анивы.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сдвинуть с места и протащить грузовик весом около 15 тонн. Упор был сделан на скорость, так как судили по Олимпийской системе.

Участникам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40 метров. В перетягивании десятитонных грузовиков сразились 14 команд(каждая по 8 человек),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трудовые коллективы. Кубок достался команде «Фантастическая восьмерка»,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ош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Невельс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Анивы. Они выиграли денежный сертификат номиналом 100 тысяч рублей.

코르사코브, 북방소수민족원주민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화영화 제작소 생겨

코르사코브의 아동예술학교에서 6월 말까지 <아트장면> 만화영화 제작소 설립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다고 지역 행정부가 전했다. 만화영화 제작소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가 대통령 장려금을 받아 아이디어 실행에 40만 루블리를 받게 된다. 장려금으로 만화영화 창작을 위해 인형 애니메이션 및 응용, 멀티영상연구, 텔레비전, 필요한 자료들을 위한 노트북들을 사는 데 쓰인다.

향후 이 스튜디오 작업을 위해 교사팀이 면밀히 계획한 가운데 10세-17세의 학생들의 참여를 흔쾌히 지원했다.

"우리는 북방소수민족원주민들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만화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미래 만화영화에 대한 스케치 구상과 예술적 표현을 위해 '회화예술'과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음성 및 음향 녹음을 위해서는 '음악예술'과와 '연극예술'과 학

생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라고 코르사코브 아동예술학교의 옥사나 세수코와 교감이 말했다.

В Корсакове появится студия по созданию мультфильмов на основе сказок КМНС

В Детск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Корсакова до конца июня начнется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студии мультипликации «АртКадр».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Идея о создании студии получила президентский грант и получит более 4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покупку ноутбуков для прикладной и кукольной анимации, мульт-лаборатории, телевизора и необходимы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творчества. Будущую работу студии уже тщательно распланировала команда педагогов, а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10 до 17 лет охотно поддержали инициативу.

«Мы планируем создавать мультфильмы по мотивам сказок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Для создания эскизов 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воплощения будущего мультфильма будем привлекать учащихся отделения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а для озвучивания и исполнения ролей - учащихся отделений «Музык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и «Театр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Оксана Шешукова.

사할린에서 첫 도자기축제 개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사할린주 <사람, 흙과 사할린>제1회 도자기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 민속창작센터에서 열린다고 주 문화부가 전했다.

이 축제는 도자기 예술을 대중화하고, 전반적으로 도예가들의 작품과 도자기 제작기법을 수강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처음 이틀간은 점토 작업에 대한 경험과 상관 없이 사할린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시-박람회와 활동교실을 진행한다.

'계속해서 이 행사는 도예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경연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진행하여 경연의 우승자들은 심사자격을 얻게 된다. 이어 모두가 고대하는 안나 쿠프리아노와(모스크바주, 즈웨니고로드)의 강습이 조성된다. 안나 쿠프리아

노와는 3대째 도자기예술의 도예가이며, 외벽, 벽난로,도자기 장식 부조의 장인이자, 장식기술 및 도자기 감습방법의 저자'라고 전해졌다.

7월 6일에는 축제가 네웰스크 휴양공원으로 이동해 개최되는데 도예가들은 지역 가정 축제인 <엄마의 역사>주최자들과 함께 바닷가 해변에서 대규모 축제를 펼칠 예정이다. 방문객들을 위해 공연과 민속놀이 프로그램, 전시-박람회, 활동교실, 경연 등 기타 활동들을 진행한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первый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керамики

С 1 по 7 ию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ойдет I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керамики «Люди, глина и Сахали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н, чтобы популяризовать искусство керамики, приобщить широкую аудиторию к произведениям отдельных авторов и мастерству керамики в целом. В первые два дня пройдут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опыта работы с глиной.

«Далее мероприятие плавно перейдет в открытый конкурс для керамистов, где победителя выберет компетентное жюри. Следом состоится долгожданный семинар-практикум от Анны Куприяновой (г. Звенигород,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ющейся керамист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ерамики в третьем поколении, мастером по рельефам для фасадов, каминов и интерьерной керамики, автором техники декорирования и методик обучения работе с керамикой», - отметили в сообщении.

6 июля Фестиваль перенесется в Рекреационный парк Невельска. Там керамисты вместе с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емей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амины истории» устроят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и рядом с морем. Для гостей проведут концертную и фолькло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ыставку-ярмарку, мастер-классы, конкурсы и другие активност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нса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АССРОЧКА

Реклама

Березка 2

Лужин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